



박승희 리디아
前 쇼트트랙 ·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

| 새로운 도전

평창올림픽을 꿈꾸면서 준비하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, 올림픽을 마무리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.

이번 2018 평창올림픽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한 종목인 쇼트트랙을 10년 넘도록 해왔고 또 직접 평가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쑥스럽지만, 나름대로 최고의 결과와 괜찮은 실력으로 해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도 두렵고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. 매일매일 고민에 고민을 했고, 오전에는 포기했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금 ‘도전하자’라고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전향(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꿈)을 선택했습니다.

2014년 소치올림픽 이후 종목을 전향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큰 목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. 새로 도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제가 평창올림픽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럴 바에는 그냥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‘어떤 결과를 내야지’ 하는 마음보다는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기로 한 선택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.

스케이팅 선수로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었고,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새로운 종목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

보고 싶었고,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. 흔히 말하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은 정말 큰 버팀목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. 종목을 바꾸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했고, 굳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던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살아가면서 언젠든, 누구든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 생각 안에서 기도로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나 미사를 볼 때, 하느님께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, 그 시간 사이사이에 기도와 미사의 시간을 갖고 답을 찾아보고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기도를 통해 당장 모든 일과 어려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고 지칠 때 하느님은 저에게 유일하고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.

저의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, 모든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, 그분께 대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,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것을,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.



교적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나요?

교적敎籍은 ‘공소인명록’이 발전하여 생긴 일종의 신자 신앙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교적에는 신자 개인의 가족 관계, 신앙명세, 세례·견진·판공·혼인 등의 성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교적은 가구별로 작성되어 있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적은 교회의 호적戶籍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가족 단위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, 혼자만 신자라면 교적에는 내 것만 기록됩니다. 주변에 교적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선 다니던 본당에 문의하라고 알려주면 좋겠습니다.

글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| 바오로딸 발행